

3. ㅅㅏㄹㅋ이

일상, 로컬리티, 커뮤니티

3. 사례

인간과기억아카이브(HMA)

- HMA는 2013년부터 Sussex대학교와 함께 매년 5월 12일 일기를 수집
- 기증받은 2013년 1회 일기를 기술하고 스캔하여 2014년 4월에 온라인 공개
- HMA는 AtoM을 국내 첫 도입
- 숙취, 외식, 아이언맨3 (2013)
- 학원, 게임 (2014)
- 2018년 디지털 유산 어워드 다양성 부문 대상

The screenshot shows the HMA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Korean text: '인간과기억아카이브' (Human and Memory Archive), '기록보기' (Record View), '전시' (Exhibition), '참여' (Participation), and '소개' (Introduction). Below the navigation, there is a search bar with the text '5월12일 일기수집' and a search icon. To the right of the search bar, there is a button labeled '4개 검색' (4 results found) with the subtext '기록물 기술' (Technical Record). Below the search area, there is a section titled '추가 검색옵션을 선택하세요' (Select additional search options). This section includes dropdown menus for '언어' (Language) set to '언어' (English), '고유 기록' (Unique Record) set to 4, and '한국어' (Korean) set to 4; '기록보존소' (Archiving Location) set to '전체' (All), with '인간과기억아카이브' (Human and Memory Archive) selected; and '생산자' (Producer), '이름' (Name), '장소' (Location), '주제' (Subject), and '장르' (Genre) dropdowns. There is also a '기술 계층' (Technology Layer) section with '상위 기술 계층' (Top-level technology category) select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there are three collection cards: '5월12일 일기수집 collection' (Collection of May 12th diary entries), '개인 일기 Collection' (Personal diary Collection), and '개인기증 collection' (Personal gift Collection).

3. 사례

로컬리티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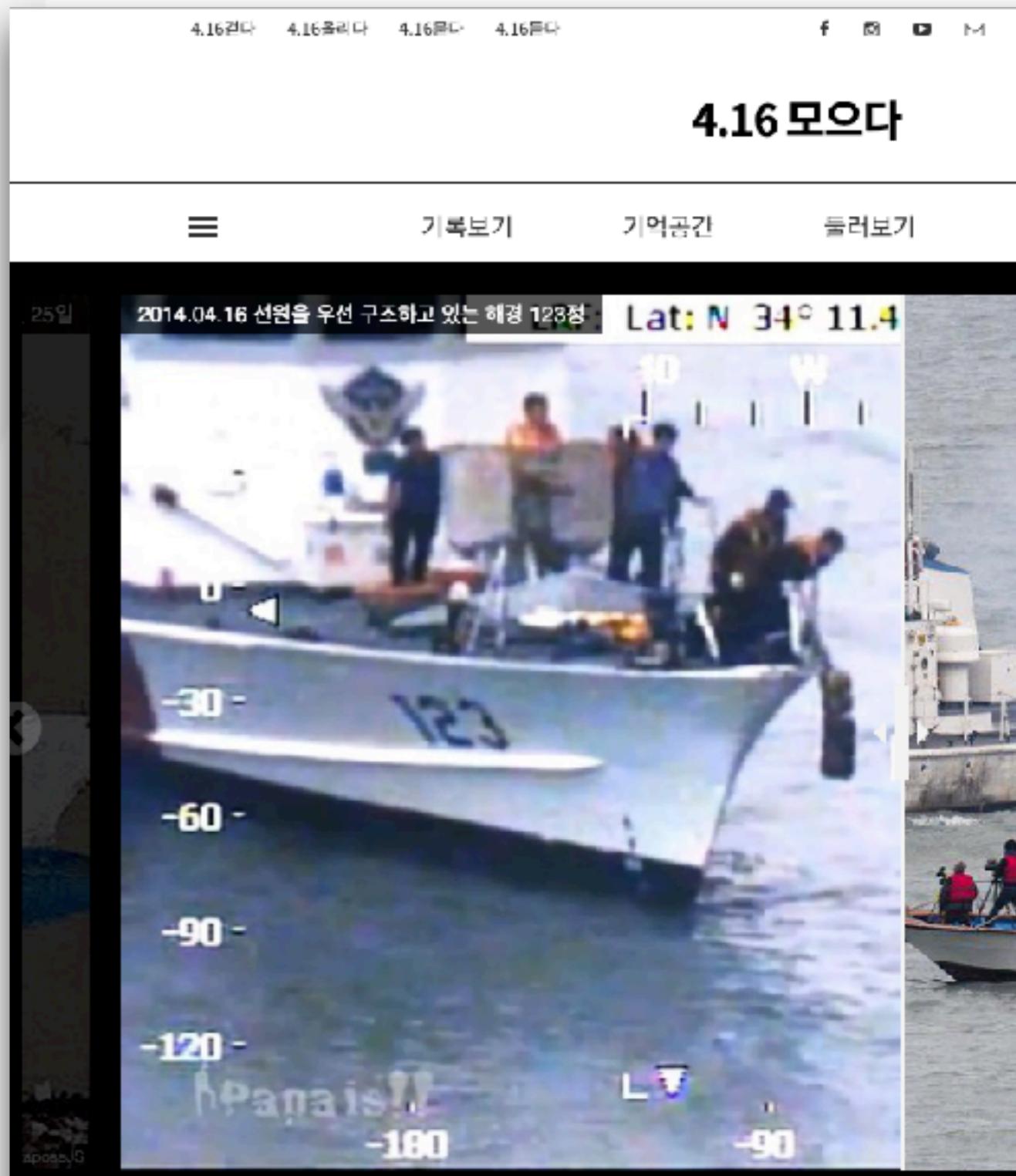
- 부산대학교의 SSK 로컬리티 기록화 연구팀은 부산항의 역사,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부산 노동자 생활사 연구의 결과물과 수집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작 (2015)
- 메타데이터 커스터마이징, 타임라인, 지도, 주제 전시, 이용자 참여 등 Omeka의 핵심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
- 2016년 디지털 유산 어워드의 공익성 부문 대상 수상



3. 사례

4.16 모으다

- 세월호 참사 기록·정보를 모은 디지털 아카이브
- 추모기록, 인물단체정보, 타임라인, 아트워크, 부모들의 걷기행진, 청문회, 선체인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망라적으로 정리하여 공개
- 2018년 디지털 유산 어워드의 네티즌 인기상 수상
- 416 참사로 아키비스트들의 사회적 참여 시작



3. 사례

김세진이재호 기억저장소

- 1986년 4월 28일 전방입소를 거부하며 분신한 김세진.이재호 기록과 사건정리, 친구들 구술
- 기록위원회 결성, 83~87학번 집단구술을 통해 80년대 학생운동 관련 기록콘텐츠 개발 예정



3. 사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 관내 20개 초등학교/중학교 기록을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교육청 역사, 학교별 전시, 주제별 전시(공문서로 보는 시대변화, 학교의 소리 등) 제공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역사전시관

통합검색

학교별 전시 주제별 전시 타임라인 관내학교지도 참여 소개

76년 소풍 [사진]

제목 : 76년 소풍 [사진]

젠더, 큐어

3. 사례

한국여성의전화 : 아카이브 문

- 35년 간의 여성폭력 상담통계 등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적 자료들을 아카이브로 구축 (공개대상 선별)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Archive Moon website. At the top left is the logo '여성인권운동아카이브 ARCHIVE MOON'. Next to it is a blue square icon with a white 'D' and the text '디지털유산아카이브 2018 선정 사이트'. The top right feature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자료보기 (Data View), 상설전시 (Exhibition), 기획전시 (Planned Exhibition), 타임라인 (Timeline), 지역 (Region), and 소개 (Introduction). The main banner image features a black flag with the text '한국여성의전화 Korea Women's Hot Line' and a white dove. Below the banner, the text reads: '여성의전화 주요연혁' and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원리를 개설하였습니다.' A blue button labeled '자세히보기' (View details) is visible. At the bottom, there are three columns: '기획전시' (Planned Exhibition) featuring a photo of a protest, '주요컬렉션' (Collection) featuring a photo of a document, and '주요기록' (Key Record) featuring a photo of a document and a snippet of text about the '2016 달에게 기족이란...' (Family is...).

여성인권운동아카이브
ARCHIVE MOON

디지털유산아카이브
2018 선정 사이트

자료보기 상설전시 기획전시 타임라인 지역 소개

여성의전화 주요연혁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원리를 개설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기획전시

주요컬렉션

주요기록

2016 달에게 기족이란...



한국여성의전화 컨설팅 모습
(서울시NPO지원센터)

3. 사례

퀴어락

- 한국 성소수자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기록들을 수집 정리하여 8천여 건을 온라인으로 제공
- 2019년 게시판 형태의 기존 아카이브시스템을 Omeka로 개편하면서 데이터 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 제고
- 이 사이트의 특징은 표지를 많이 보여주는 것(화려한 색, 디자인, 대담한 콘텐츠)
- 퀴어락의 상근직원은 활동가이자 아카이비스트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카이브를 통해 보여주려 함
-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 컬렉션도 수집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QueerArchives (퀴어락)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바로가기' (Direct Link), '언어 선택' (Language Selection), '로그인' (Login), and '회원가입' (Sign Up). The main header features the site's name '퀴어락' and its subtitle 'Korea QueerArchive'. Below the header is a search bar with the placeholder text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Please enter your search term) and a note '추천검색어: 성소수자 동성애 LGBT 퀴어문화 커밍아웃' (Recommended search terms: Lgbtq, Queer, Coming out). The page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기록' (Records), '전시' (Exhibitions), '참여' (Participation), '안내' (Information), and '소개' (Introduction). The '기록' section contains a thumbnail of a poster for the '2019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 포스터' (Poster for the 20th Seoul Queer Parade) with the text '최근기록' (Recent Record) overlaid. The '전시' section features a large image of a person holding balloons with the text 'PH-0001419' overlaid, with a caption about the 2015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Below these are several circular tags containing hashtags: '#운동', '#트랜스젠더', '#피켓', '#리즈비언', and '#법'. The '특별전시' (Special Exhibition) section is partially visible at the bottom.



The image shows two spreadsheets. The left one is a Microsoft Excel spreadsheet titled '퀴어락은 출판집' (Queer Collection Publications), listing various publications with columns for ID, Title, and URL. The right one is a Google Sheets document titled '[글] 2011년 서울시내구 투어문화축제 & 퀴어문화 축제 부스행사-합례선' (Article about 2011 Seoul City Queer Culture Festival and Queer Culture Festival Booth Events), listing events with columns for ID, Date, Title, and URL.

<그림> 퀴어락 개편 전 문제점

<그림> 퀴어락 전시 - 캡슐 컬렉션





지난해 경찰에 잡힌 여자차림의 남성들。 이들때
문에 텍서스한 여성들이 입는 피해가 놀라울정도다。

Ruin, *newspaper scrap (1963, Seoul)*, 2019,
Digital print, Dimensions variable



PH-0000810

게이 사우나로 소문이 났던 삼성동에 위치한 일반 목욕탕의 모습이다

3. 사례

성평등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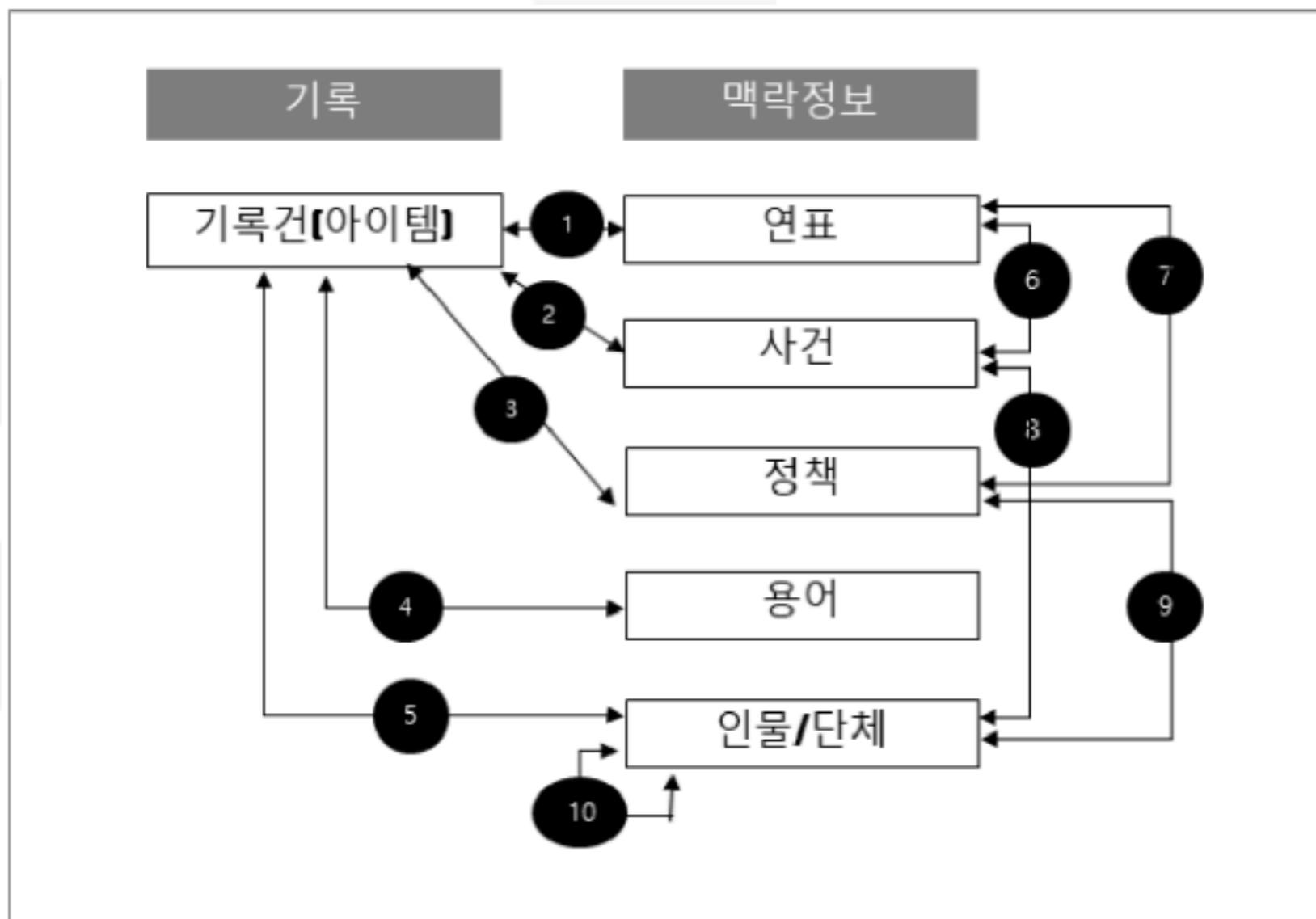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정책자료, 민간 여성단체 기증자료, 강남역포스트잇 등 컬렉션 제공
- 2015년 성평등도서관 개관 이후 NGO, 개인/단체로부터 자료 기증받아 2018년 아카이브 구축

성평등아카이브 열다	기록	전시	참여	알림	소개
<p>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공간, 바로 이곳(Here)이라는 의미를 담고 태어난 국내 최초의 젠더라이브러리입니다. 서울시와 시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정책자료, 여성단체 현장의 기록을 모아 정체비빔회, 전시, 교육 등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도서관이 되고자 합니다. 성평등도서관 여기가 이 땅의 성평등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죄선을 다하겠습니다.</p>					

3. 사례

성평등 아카이브

- 기록과 맥락정보 연결되도록 설계 (연표, 사건, 정책, 용어, 인물/단체)
- 사서 2명이 운영 가능한 시스템과 전략 설계 (아웃소싱 전략과 오픈소스)



3. 사례

성평등 아카이브

● -

The screenshot shows a collection page from the Seoul Gender Equality Archiv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Home' > 'Collection' > 'Collection'. Below that is the title 'Collection' with a subtitle 'Viewing the collection of the Seoul Gender Equality Archive'. A horizontal menu bar includes 'Seoul City Gender Equality Collection', 'Park Wonsoon Author Collection', 'Women's Rights/Women's Movement Collection', 'Sexual and Human Rights Collection', and 'Sexual Diversity Collection'. The main content is a grid table with the following columns:

기관	기증자	유형
000 서울시(본청)	ESCAP	도서간행물류
1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걸스로봇	문서류
101 성평등도서관 '여기'	김광이	소식지
200 지자체 및 유관기관	김정희	박물류
300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동국대학교 졸여학님회	기념품
400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미래혁신포럼	사진그림류
	박영숙	포스터
	박원순	연설음식류
정보사전	주요사건	주제
단체정보	가정폭력방지법과 성매매처벌방지법	000 문화
법제정보	강남역 인근 여성살해 사건	010 문화일반
사건정보	국제장애인 권리조약	020 미디어
언표	낙태죄 폐지 운동	030 예술
용어정보	미투운동	100 여성주의/여성운동
인물정보	베이징여성대회	110 여성주의

3. 사례

성평등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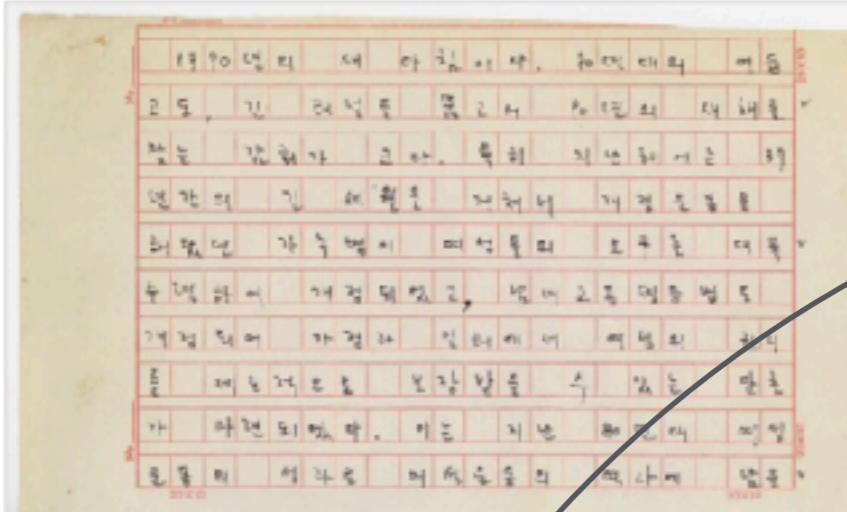
- 여성운동, 재단연혁, 호주제폐지 등 연표와 함께 기록 제공

홈 > 기록보기 > 관표보기

연표보기

[여성운동 관련 연표 보기]

여성운동 여성가족재단 호주제폐지 낙태죄폐지 부천서성고문사건 여성국제전법



[1886-00-00] 이학학당 시작

[1894-07-27] 갑오경장, 여성제가 금지와 조혼제 폐지

[1895-05-18] 을미의병 여성의병 참여

[1898-05-01] 찬양회 여성동문발표

[1969-12-00] 순성여학교 설립

[1907-02-23] 국채보상운동 여성조직

[1908-04-00] 관립 한성고등여학교 설립, 고등여학교령 공포

[1913-09-00] 네덜란드 승죽회 항일애국단체 활동

한국 여성운동 히스토리

여성운동은 사회운동이다. 사회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형태다. 한국여성운동은 한국에서의 여성운동은 개화기에 서 여성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갖고 되었다. 여성운동이 자리 잡기 대안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도 하는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 기 때문이다.

관련기록

- 1969년 여성학원설립
- 1970년 여성법률연대설립
- 1970년 여성법률연대설립에 대한 의견서(2)
- 호주제 폐지 청원 기념촬영
- 호주제 폐지 자체설 및 여성연합단체 활동이
- 90년 가족법개정운동 철학 '호주제 폐지'

관련사건

- 호주제 폐지

6



3. 사례

성평등 아카이브

- 37,109개의 강남역 추모 포스트잇 텍스트 분석 및 시각화



3. 사례

성평등 아카이브

- 온라인 참여 채널 운영(추모, 행사소식, 기증 등)

The screenshot shows a digital memorial board for the Gangnam Women's Death Case. It features several yellow sticky notes pinned to a corkboard-like background. The notes contain personal messages from visitors.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기록보기', 'e-전시', and '공유하기'. Below the navigation is a search bar.

강남역여성살해사건 추모 기억존

2016년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추모금을 남기고 싶으시면 참여하기 페이지에서 글을 남겨 주세요.

입시 폭력사건들? 가거지는 더 이상 폭력
폭력의 막을 벗어나기로. 당시 놀랐던
죽음의 순간에 모든 선택은 우리가 만들
거예요.

나는 나를. 이를 두번은 단체단체로 살피고
'죽어겠다'는 생각을 많은 개인이 있다.
나는 그저 물어 물어가며 살피지 않았을뿐이
다. 이 물어 물어질 물구들은 내가 살피
생각을 되돌리는 사람들의 중요성과 필요성
되돌린다. 우리가 나에게 품을 한다....

죽이는 여인의 글을 볼 수 있는 것 우리입니다
다. 우리는 살피면서 다른 살피면서.
당신의 선택을 드릴 예상하고 살피면서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품을 한다. 그리고
죽어겠다고 살피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인의 선택을 살피면서 살피는 여인과

The screenshot shows a list of event news items.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기록보기', 'e-전시', and '공유하기'. Below the navigation is a search bar.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six event cards, each with a title, date, and a brief description.

행사소식

성평등 및 여성운동과 관련된 행A-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시면 참여하기 페이지에서 공유할 행사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전체화면보기\]](#)

제목	일자	주제
페미회로 텔레비상영회	2017-07-06/2017-07-07/2017-07-12	페미회로
MS 개발자 양파님과 함께 하는 여성 개발자로 살아남 기	2017-09-10	페미회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정책토론회	2019-09-0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7차 페미시국광장	2019-08-30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6차 페미시국광장	2019-08-23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 총 결기	2019-05-30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 죽자>

3. 사례

YWCA 아카이브

- 100주년 활동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 중
- 2019년 기록물 가정리 및 목록 2천건 작성, 2020년 7월 디지털 아카이브 공개 예정



외환위기, 디아스포라

3. 사례

97외환위기 아카이브

- 97년 IMF구제금융 관련기록 수집/정리
-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20년 비밀해제된 IMF 기록을 입수하며 프로젝트 시작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the '1997 외환위기아카이브'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rchiv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홈페이지' (Homepage), '목록보기' (List View), '관리모드' (Management Mode), and '선택메뉴' (Select Menu). The main title '1997' is centered above the subtitle '외환위기아카이브'. Below the title, there is a search icon. A horizontal menu bar features '정보사전' (Information Encyclopedia) in the center, flanked by '용어정보' (Vocabulary Information) on the left and '인물조직정보' (Personality and Organization Information) on the right.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grid of 12 items, each consisting of a logo/icon and the name of an organization or individual:

AMF(아시아통화기금)	Benjamin B. King	BIS(국제결제은행)
David Lipton	Hubert Neiss	IBRD
ILO	IMF(국제통화기금)	Lawrence H. Summers
Michel Camdessus	Robert E. Rubin	S&P
Timothy Franz Geithner	WTO	강경식

정공센 활동가님들~ 작년에는 열심히 모으고 정리했으니, 올해에는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글도 쓰셔야 합니다. 저희도 돋겠습니다.



OPENGIROK.OR.KR

[정공센은 지금] 97외환위기 아카이브 작업중!

97년 가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외환위기의 광풍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

398

도달

94

참여

게시물 홍보하기

18

댓글 7개 공유 1회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관련성 높은 댓글 ▾



댓글을 입력하세요...



정진임 마지막 문단-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시는 건가용ㅎㅎ

좋아요 · 답글 달기 · 메시지 · 29주

1

3. 사례

우토로 아카이브

- 우토로평화기념관 건립과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중
- 2019년 국내활동 기록 목록, 디지털화 수행



1941년 일제강점기 군 비행장 설립에 동원
된 조선인들이 살던 일본 **우토로 마을**.

반세기 넘게 마을을 일구며 살았던 주민들이
퇴거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토지 매입과 시영주택 건설이 진행되었고
'우토로 마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인 노동자 합숙소 함바,
주민들이 투쟁하며 그렸던 그림과 구호,
낮은 지대의 집들,
주민들이 사용했던 우물 등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토로는 머지않아 잊혀지겠지요...



4. FINDINGS

오픈소스는 주제아카이브를 활성화시켰다

- 최근 5년 동안 9개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7개의 로컬리티 아카이브와 7개의 주제 아카이브 구축
- (기관 유형) 공공기관보다는 연구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더 많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
- By subject type, the largest number of archives are community, followed by locality and various subjects
- (소프트웨어 유형) 오메카를 사용하는 기관이 23개로 대부분을 차지. Curatescape를 Omeka의 일종으로 본다면 전체의 96%가 Omeka를 활용

Institution type	Subject	O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earch Organizations (7)• Civil Society Organizations (5)• Local Governments (5)• Private Foundations (3)• Central Offices (2)• Memorial Projects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unity (9)• Locality (7)• Various subject (7)• History of Organization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Omeka (23)• AtoM (2)• Curatescape (1)• DSpace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현황

Quoted from: An Daejin(2019), Myongji University, Ph.D. Thesis

4. FINDINGS

오픈소스는 활동가 아카이스트의 툴킷이다

- 시민단체나 커뮤니티의 아카이브는 자신들의 활동이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충실하며 그래서 유지가 된다. 퀴어락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데 아카이브가 맞물려 있는 곳은 더욱 그렇다. 하기 싫어도 아카이브를 해야 한다.
- NPO 활동가들은 정책을 입안하는 애드보커시 활동에 아카이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카라, 한국여성의전화, 정보공개센터)
- 활동가로서의 사명에 아카이브가 맞물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4. FINDINGS

오픈소스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다

- 모듈화된 기능과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는 AtoM과 Omeka의 핵심적인 장점이다. 이는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Omeka의 경우 더블린 코어와 최신 웹 기술을 기반으로 90여 개의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 기록 소장기관들은 각자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기능 플러그인을 선택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성할 수 있었다.

Archives	Timeline	Geolocation	Contribution	Relation, Visualization	Social Media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Dongdaemun-gu Office		◎	○		○
Seoul North Educational Office	○	○	◎		○
Gwangmyung-si Lifelong Learning Center Archives	○	○	○		○
Gyonggi-do Memory	◎	○	○	○	○
Gender Archives	◎	○	◎	◎	○
HMA			○		○
PNU Locality Archives	○	○	◎		○
Daehan-Micro Archives	◎	○	◎		
No gun-ri Digital Archives	○	○	○		○
Gongju-hak Archives		○	◎		○
Incheon-hak Archvies		○	○		
416 Family			◎		
archive.416family.org	◎	○	◎	◎	○
Ewoo Archives	○	○	○		
Kim & Lee Archives	◎	○	◎	○	
QueerArc	○			○	
Archive Moon	◎	○			
Kara Archives		○	◎	◎	
Utoro Peace Archives	○	○	○	○	
Sunlight Learning Center Archives	○	○		○	
97 Economic Crisis Archives	○			◎	

4. FINDINGS

오픈소스와 애자일 철학은 참고할 만하다 (공공영역)

- AtoM, Omeka, Archivematica의 모듈화된 구조, 데이터 표준, 유연성과 확장성 등의 특징은 공공 분야 아카이브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기록시스템들은 AtoM이나 Omeka와 다른 카테고리의 소프트웨어이다. 하지만 민간의 여러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OSS의 구조나 이용자 편의성, 애자일 개발 철학 등은 점점 참고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 2016년 서울기록원을 시작으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비서실 모두 이러한 OSS들의 특장점을 벤치마킹하였다.
- 서울기록원(Seoul Metropolitan Archies)은 Archivematica와 Preservica를 벤치마킹하여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서비스 기반의 유연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과 대통령기록관 등은 차세대 AMS 개발을 앞두고 OSS의 유연성과 확장성 벤치마킹하고 있다.

4. FINDINGS

No Funding, No Ecosystem (펀딩이 안되면 생태계도 없다)

- 공공 분야의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제는 언급할 만한 성공사례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예산을 마련하거나 오픈소스 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만들 어놓고 다음 해에 담당자가 바뀌면 아카이브시스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 연구단체들은 한국학술재단이나 교수연구기금 등 기존의 연구 예산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 전산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유리했다.
- 공동체나 NPO는 프로젝트의 자금 펀딩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회비나 작은 규모의 자선기금을 활용하고 있었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웹 호스팅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사이트가 중단되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퀴어 아카이브의 경우 개발비를 마련하지 못해 아카이브 랩의 공익사업으로 만들었고, 현재도 가장 저렴한 웹 호스팅 요금제를 이용하다 보니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십초 후에야 결과가 나온다. 펀딩이 잘 안된다 보니 건강한 오픈소스 생태계가 잘 안 만들어진다.
- 다행히 최근에는 펀딩의 출처가 다양해지고 있다. 강원드 증평군은 농촌살리기 사업에 공모해 20억을 지원받았다. 그 외에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도 아카이브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개발비의 펀딩과 함께 개발 이후의 사이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오픈소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픈소스의 적극적 이용자와 OSS를 다루는 업체가 많아져야 한다. 특히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기록 커뮤니티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4. FINDINGS

오픈소스는 기록대학원생 교육 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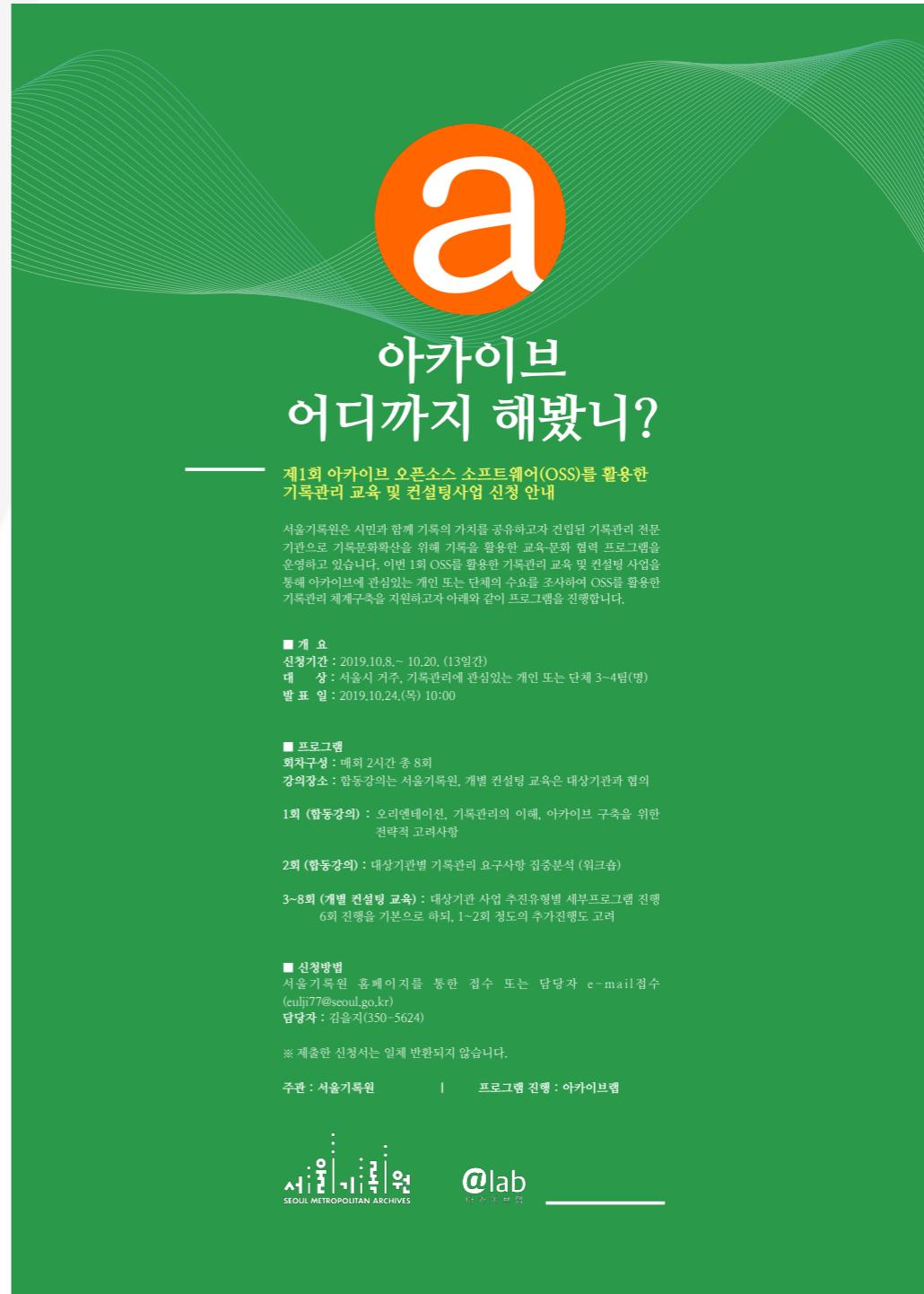
- 여러 기록대학원과 역사학, 문헌정보학과에서 AtoM과 Omeka를 실습에 활용하고 있다.
- AtoM과 Omeka를 써 보면 자연스럽게 향상된 실무를 배울 수 있다.
- 특히 직접 기록을 수집하여 주제 아카이브를 만들어 보면서 공공기록의 레코드 매니저가 아닌 아카이비스트로 진로를 결정하기도 한다.
- 우리나라의 기록학 대학원 학생들의 90% 이상은 6급 공무원을 꿈꾸고 있다.



4. FINDINGS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펀딩 : 연속사업 필요, 펀드다변화, PRO처럼 국가목록사업 고려, 중간지원조직 필요(광역별 아카이브지원센터)
- 전문지식 : 리에종 아카이비스트 파견(전문가협회 주도, 육아휴직처럼 유급운영), 컨설팅 프로그램 (서울기록원 올해1회), 유니버설매뉴얼 팔요(saa 정리와기술 책처럼, ywca 돌람수렌 사례)
- 기술,장비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민기사 등(생색내기 넘어야), 아카이브랩 서버에 호스팅 15개
- 시스템 : 보급형oss 필요, 시스템의역할 재정립(디자인에 목매지 말 것)



감사합니다.

안대진
daejin@archivelab.co.kr